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벗을 것과 입을 것

(에베소서 4:25-32)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출감 하면 죄수복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입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 벗을 것과 입을 것

(1) 거짓을 버리고 참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특징을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시고 진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2) 노를 벗고 각성을 입으라

분을 내는 일에는 죄를 가져오는 분도 있지만 한편 옳지 못한 일을 보고 내는 의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보고 참지 못해 내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분을 내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3) 도적질을 벗고 선을 입으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도적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는 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4)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입으라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죽었던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5) 악독을 벗고 사랑을 입으라

본문 31-32절에는 버릴 것 여섯 가지 곧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휘방하는 것, 악의와 입을 것 세 가지 곧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피차에 사랑하고 용서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ings to take off and things to wear

(Ephesians 4:25-32)

We can find out one's social position according to the clothes that he or she wears. Just as a prisoner takes off his prison uniform when he is released from prison, those who have become Christians must take off their old clothes as sinners, and put on new ones, as we stand before God.

1. The things to take off and wear

(1) Put off falsehood and wear the truth!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must put off all falsehood and live according to the truth.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and have now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person. Because we keep the truth and live our life in the truth, there is no other way to be true.

(2) Take off your anger and put on awakening!

There is a person who ends up sinning whenever he gets angry, but another person who has righteous indignation whenever he catches a glimpse of unrighteous activity. Even in righteous indignation, we must be careful not to continue in anger whenever we observe malice. This is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we may fall into sin even with righteous indignation. Therefore, the Lord teaches "in your anger do not sin." We must be spiritually awake so as not to give the devil a foothold and fan our anger into something worse.

(3) Take off stealing and put on goodness!

Before God, we are all thieves who should not have been offered life. But from now on, as those who have become a new person, we must throw away the malice of stealing from God and positively do what is right.

(4) Take off unwholesome talk and put on virtue!

The Apostle James said that anyone who does not make a mistake in his speech is a perfect man. Since one's speech is, in a sense, his personality, we must be very cautious what we say. Just as one word from Hitler's mouth created the melting pot of a World War, one word from Jesus Christ's mouth has made the dead come to life. Therefore, as we stand before God, we must take off all filthy talk, and we must say what is only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ll we say must be a benefit to those who listen.

(5) Take off all bitterness and put on love!

In vv. 31-32, Paul lists six things to throw away, that is, bitterness, rage, anger, brawling, slander, and every form of malice. He also lists three things to put on, meaning that we must put them all on in order to be kind,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and forgiving towards one another.

My beloved Christians!

By loving each 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while we take off the old person and put on the new,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who please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워싱턴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사명자대회 15일째 진행 중

10월22일(금) 오후7시 현재 839명 참여 · 성경4독 통독중

지난 10월10일(주)부터 시작된 2010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맑은 시간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맡아 기도의 불길을 이어나가고 있다.

10월22일(금) 오후7시까지 839명이 릴레이 성경읽기에 참여하였고, 성경4독을 통독중에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하나

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열열이기도(다니엘 기도), 70인전도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도,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정으로 2010 사명자 대회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또한 11월1일(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요한 칼빈의『기독교 강요』를 강해한다.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혜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일 자	주력교구
11월 1일(월)	1, 2	11월 8일(월)	1, 2	11월15일(월)	1, 2	11월22일(월)	1, 2
11월 2일(화)	3, 4	11월 9일(화)	3, 4	11월16일(화)	3, 4	11월23일(화)	3, 4
11월 3일(수)	5, 6, 7, 8	11월10일(수)	5, 6, 7, 8	11월17일(수)	5, 6, 7, 8	11월24일(수)	5, 6, 7, 8
11월 4일(목)	9, 10, 11, 12	11월11일(목)	9, 10, 11, 12	11월18일(목)	9, 10, 11, 12	11월25일(목)	9, 10, 11, 12
11월 5일(금)	13, 14	11월12일(금)	13, 14	11월19일(금)	13, 14	11월26일(금)	13, 14
11월 6일(토)	15, 16	11월13일(토)	15, 16	11월20일(토)	15, 16	11월27일(토)	15, 16

2010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및 성경암송

지난 10월22일(금) 오후7시 602호, 603호, 609호에서 진행된 2010성경암송대회에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친 39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및 암송을 한다.

<교육1-2국> 대상: 박연준(초등부) 금상: 강민교(유치부)
 은상: 현다영(유년부) 동상: 송지현(유치부)
 <교육3-5국> 대상: 김진달(장년부) 금상: 정윤순(장년부)
 은상: 김규송(소요리1부) 동상: 김영(장년부)
 <영어부> 대상: 최영은(청년부) 금상: 장하량(유년부)
 은상: 중등부1팀

2011년 교회봉사지원서 마감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봉사지원서를 바탕으로 2011년도의 부서별 운영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교회봉사지원서 제출은 신규봉사자 또는 부서이동 봉사자 위주로만 받는다.

2010 피택집사 · 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

10월29일(금) 오후7시 801호

2010년 피택자 당회고시가 10월29일(금) 오후7시 801호에서 열린다. 면접은 오후7시 50분부터 8시30분까지 각 조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손경순 오르간 독주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서울 서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열린다. 손경순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종교음악과(BM), 동대학원 음악학과(MM)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 오르간과 졸업(KA), 현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부산 오르가노 회장,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이사, 서울 서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 중이다.

목회사신

내 사랑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내 사랑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서울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198개국 대표 4,000명과 초청받은 손님들과 그 가족들 1,000명 도합 5,000명의 인종들이 모인 이곳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은 할렐루야 아멘의 함성이 지축을 흔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찬양의 향이 하늘을 가득 메운 문계구름처럼 솟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세상(whole World)에 전하자는 로잔운동의 정신이 살아 불타고 있는 현장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거의 23시간을 비행기속에서 지내고 지난 주일은 이곳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서 한국 대표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네 번씩 하던 설교를 한 번만 하고 나니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으나 여기까지 와서 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교민들의 얼굴에 굳게 패인 주름살을 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주일 저녁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의 개회예배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동력을 그대로 보여준

감동의 축제였습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교회 이갑진 장로님께서 단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로잔지도자 대회시에 만났던 분들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교회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아이들이 고향 생각하듯 여러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회장을 지날 때면 여기저기서 Hi, Dr. Lee라는 즐거운 부름이 폭발되는데 모두가 우리교회 김치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145개국 지도자들이 김치에 초청되었으니 서울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검은 곰의 흰점처럼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세운 이 나라는 흑백갈등의 표본이 되었듯이 세계인의 주목 속에 만델라 흑인 대통령이 취임 후 노예에서 해방은 얻었으나 치안 부재의 혼란기를 여차피 겪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안정된 사회처럼 보여 지는가 하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슬픔을 방불케하는 빈민굴이 있는 글자 그대로 흑백의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컨벤션 센터를 나와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와 한다는 안내를 받고 조금은 염려를 했으나 하나님의 자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다짐과 전략을 짜내는 케이프타운은 이 시대의 예루살렘 총회를 연상할 만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

어 그 염려는 기쁨과 감사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10월18일 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시작된 성경의 축제는 로잔정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목회자세미나 프로그램이 말씀과 상황(Text & Context)으로 짜여 있듯이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베소서를 매일 한 장씩 공부하면서 진리, 화해, 세상(신앙들), 세상(우선권들), 교회(일치), 교회 협력을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와 연극으로 에베소서에 대한 개론적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을 찾고 로마제국의 박해를 설명한 후 모든 참가자들이 에베소서 1장을 읽고 6명씩 조를 짜서 800개가 넘는 테이블에 나눠 앉은 각 그룹별로 에베소서 토론과 함께 각각 주해를 하고 적용까지 그룹별로 나눈 후 강해설교를 짧게 듣고 다시 테이블별로 자기 나라 상황에 적용시키는 논의를 한 후 전체를 종합하는 결론적 기도를 제가 하였습니다. 한국대표단은 지난 1년간 매월 한차례 우리교회에서 모여 에베소서 연구를 했고 주제강연을 연구 분석하였기 때문에 쉽게 각 테이블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800개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5,000명의 인종들을 한 눈으로 바라보는 강단 위에 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필라 제일 장로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문장 검토와 최종 type를 하기 위해 전문 typist에게 맡겼다. 그 무렵 한국인들의 이민이 시작되어 필라델피아에도 한인들이 떼를 지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종운의 집은 갑자기 대서소, 복덕방, 직업알선소와 같았다. 그의 아내가 수고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섬기던 교회 존스목사님을 찾아가 한국인 영어반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매일밤 8시부터 10시까지 약 150명 이상씩 모인 성인들에게 생활영어를 존스목사와 이종운은 열심히 강의한다.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



어머님과 어린 시절 이종운 목사

는 법을 가르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종운은 로간 한인촌을 조직하여 한국인이 사는 동리를 새벽에 빗자루 들고 쓰는 청소운동을 시작하고 자기들 내외는 일 나갈 터이니 이종운에게 자기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 달라는 이틀까지 생길 만큼 이종운은 로간 한인촌의 대부였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일간지에 몇 차례씩 이종운의 자기 민족 이민자 위한 수고를 사진과 함께 기사화했다. 서재필 박사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Jayson Center를 세워 이민자의 생활, 직장, 교육등을 돕고 Medical clinic을 세워 건강을 돌보았다. 로간 한인촌을 세워 Ad Hoc Committee for Logan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타민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운영했다. 미국에서 해외봉사를 위한 Peace Comps(평화봉사단)이 있듯이 국내 봉사를 위한 Vista제도가 있다.

의사, 변호사, 목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들로 구성된 vista들은 매주 10불정도씩 받고 이민상담, 실업상담, 건강상담, 직업상담등 이민자를 위한 특별봉사를 한다. 이종운은 한인 이민자를 돕기 위해 Vista에 가입하여 필라델피아 이민국 정식 통역관이 된다. 불법이민자 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하루에도 수명씩 체포되어 간이재판을 받게 된다.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누나를 칼 들고 죽이겠다고

도착하던 날부터 하루 두 차례씩 Think Tank멤버들의 모임이 계속되어 나는 아내와 함께 식사시간도 함께 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아시아를 주제로 특히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탈북인 18세된 여학생이 아버지를 북한에 빼앗긴 서러움을 토해낼 때 세계 모든 대표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국인의 슬픔 뿐 아니라 북한 구원 운동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5,000명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왔으니 이런 큰 대회에 빈틈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식사 시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서서 접시를 들고 먹는 일은 50년전 군대 제대 후 처음인 것 같았으나 감사로 먹으니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빈 접시를 들고 가는 내 등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돌이킨 나에게 낯선 어떤 검게 익은 얼굴의 키가 작은 중년신사가 접시든 나를 벌떡 끌어안았습니다. 터키목사님으로 김치에 참여했던 본인인데 전날 내가 강단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후에 만나지를 못해 찾다가 만났으니 그 반가움의 표현을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서울교회가 자기 목회 비전이고 모델이라고 서툰 영어로 말하면서 내게 머리를 숙여 감사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인사를 나 혼자 받는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따라 다녔다는 17세 소년이 동리사람들의 신고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중 이종운은 통역겸 변호를 하여 무죄선언을 받기도 했다. 우리말과 영어 표현의 구분이 다른 점을 지적하여 판사를 설득시킨 것이다. "Don't you have a knife in your hand." (네 손에 칼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 경찰에게 소년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려면 "아니요 나는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다"라고 해야 하는데 한국어 어법대로 "네" 라고만 대답을 하니 칼을 가진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날 재판관에게 당당하게 예문 몇 개를 만들어 들려주며 소년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같은 대답이 나오자 판사가 한국어의

구문을 따라 갖 이민 온 소년이 한국식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칼을 빼앗은 경찰의 고발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했다.

매일밤 계속되는 영어수업 시간에 성경공부시간 비슷한 강의가 이어지자 학생으로 등록된 이민자들의 흥미가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날 이종운은 과로로 쓰러졌다. 문병을 온 반 대표들이 교회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이종운은 이미 필라델피아에 필라 한인교회, 연합교회, 북부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했다. 그들은 이미 다 그곳에 가 보았으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떼를 쓴다. 그들 중엔 한국에서 믿음을 갖고 오신 분도 있으나 대부분이 이종운의 영어 강의를 통해 복음을 처음 들은 이들이었다. 병석에서 깊은 기도를 하던 이종운은 유학 온 학생이 유학을 마치면 귀국해야 되는데 이곳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행 20:32) 자신은 담대하게 떠났듯이 이종운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를 Holy Trinity Bethlehem Presbyterian Church의 한국어 class로 시작하여 교회를 출발시킨다.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교회라 하여 필라 제일장로교회라 명명했다 (다음호 계속)

20일(수)에는 WRF(세계개혁주의 연맹)모임에 참석하여 2014년 한국에서 WEA(세계복음주의 연맹)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WRF총회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사무총장 사무엘 로간박사의 긍정적 내락을 받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서로 만나지도 못했던 이영기 장로님과 이갑진 장로님을 만나 차 한 잔 나누며 교회를 위한 소박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21일(목)에는 아프리카 8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한국 로잔위원회가 초청하여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2일(금)에는 아시아로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2011년 제7차 아시아 로잔대회를 의논하고 준비위원회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이곳 일정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 벌써 짐을 싸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지난 수요일 비행기를 타면 목요일(28일)엔 서울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박노철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멀리 있으나 서울교회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져 있어 기도 쉬는 일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불비례 합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여러분의 목사 이종운 드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년전 광야 같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대로 목자를 되돌려주신 하나님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명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심에 또 감사 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교회설립 50일 전부터 특별기도회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며 다니엘의 마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태신자를 품고 교회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갈수록 세상이치가 교회를 파고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합리화가 말씀을 밀어내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잣대질하는 이 세대에, 그래도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해마다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공동기도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알고 동참케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의 열풍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닫고 점검하고 변화되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태신자를 품고 끈질기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에 복종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의 삶에 총력을 다하여 이번 공동기도제목의 주제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주력교구와 부서에서 합심하고 뜨겁게 달려가져 핑계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장로 김영준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부름받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양재성 · 이현주선교사
(카자흐스탄 파송예정)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잠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며 주셨던 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3-14)

무엇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씀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감히 한없이 부족하지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그 부르심에 이처럼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광활한 땅 카자흐스탄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약 8백 7십만의 카자흐족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서울교회 선교사 훈련을 통해 믿음의 지경과 신앙의 깊이와 지평을 넓혀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찬양대(부장:조정식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깊으신 사랑(E.Titcomb)’의 두곡을 김낙형성도(지휘박사, 미국 웨퍼드 음대 교수역임, 현재 엘 찬양 아카데미 대표)의 지휘와 오신옥 집사(평택대 음대 교수)의 오르간, 박수강(경희대음대 대학원졸)성도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이곳에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 참석차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88명의 한국대표단을 인솔하고 14일(목)출국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신옥 집사 : 2010년 10월28일(목) 7시30분 뉴욕 Riverside Church에서 오르간 독주 및 세계 합창제 오르간 반주
- 박정애 & 김양언 피아노 듀오 콘서트 : 10월28일(목) 오후 7시30분 모차르트 홀
- 이사 : 6교구 이승철 성도 우스라 집사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7단지 723-1102
6교구 설치집사, 박정은 집사 : 양천구 신정1동 목동아파트 924-1404호

- 주간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10.24) 모세선교회(10.31)
- 금주의 식사 : 박성국, 백정숙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유을상 집사, 윤숙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나의 하나님

믿음의 유산

이정연 권사(12교구)



사랑하는 손녀 주하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하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의 선물인 주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자녀 주하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주하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결실의 계절, 풍성히 열매 맺는 이 가을에 돌을 맞게 되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머니는 주하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말씀을 통해 주하에게 이루어 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한 것이 드디어 돌 선물이 되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가 하나님 말씀이 내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평생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값지게 생각되어 우리 주하에게 선

물하게 되어 할머니는 정말 기쁘다.

성경말씀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

와 같이 할머니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소중한 믿음을 사랑하는 주하 엄마와 주하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니, 성경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 받아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주하가 되기를 바란다.

성경필사를 하는 동안에는 주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넘치는 생명수로 인해 날마다 풍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다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차서 꼭 할머니가 주하에게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

주하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4. 피택자들의 준비 과정 순조롭게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